

在日大韓基督教會  
宣教70年을 향한 標語

1. 教會에 革新을!
2. 社會에 變革을!
3. 世界에 所望을!



THE GOSPEL NEWS

4月15日(木) <1976年> 第321号

發行所 福音新聞社

160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電話 03(202)5398番

發行人 崔京植・編集人 金君植

毎月1回 15日發行 購読料 1部20円

昭和38年9月20日第3種郵便物認可

印刷所・青丘文化社



# 復活の主

金元治總會長の復活節 메시지

시편22편  
1~5절



一, 십자가에서 우리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신음의 호소를 하셨다. 영적인 면의 고통이 있었다. 이것은 시편22편의 다윗의 시(詩)를 가지고 괴로움의 호소를 한 것이라고 한다.

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괴로움과 살이 찢어지는 이고민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는 다 믿고 있는 신앙의 고리에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사형을 받아 죽으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의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이단 죽음에 있어 부활이 없다. 괴로움이 없이 기쁨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그러한 심각한 절망이라고 느끼지 못할까? 대로 믿지도 못하고 있다. 실체는 거기에 큰 죄가 있는 것이다. 그 죄 때문에 주께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시편22편 1, 2절은 고도의 극도에서 나오는 신음의 말이다. 3, 4절에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 이스라엘의 찬송 말이 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주, 주들의 의로움에 기쁘시라. 주의 부활을 믿고 주께 부를 것이요 구원을 얻었다. 주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친 것은 소망 없는 원망의 호소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죄의 정면에서 다시 진리를 받는다는 절대적인 신앙에서 나온 최고도의 신의 기도였다. 부활의 주는 이 기도에서 있었다. 신앙은 정면에서 생기는 것이다. 부활은 죽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단 죽음에 있어 부활이 없다. 괴로움이 없이 기쁨이 없다. 우리는 이 지상적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죄의 무서움을 모른다. 그것은 죄와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주를 의뢰할 필요도 없다. 그는 죄에서 버림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죄인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 죄와 단절시킨 것에도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의 멍에를 맴돌 필요가 없게 되었다. 주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소굴에서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 다시 나의 하나님과 비참한 외침을 하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만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죽음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였다.

## 盲人伝道에 喜捨

東京教會의 유명옥 집사

東京教會 劉命玉 집사는盲人伝道者 金善泰牧師의 설교에 큰 감명을 받고 金牧師의 宣敎活動을 적극 反應하기 위하여 點字 성경 찬송가 30名분(9万円)을 기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기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가정 방문에 나서 韓國盲人에게 生命의 福音을 전하는 이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金善泰牧師

## 韓國盲人伝道者 金善泰牧 師가 來日

대한예수교장로회 盲人宣敎部 총무인 金善泰牧師가 지난 3월 20일 來日하여 日本盲人의 各機關 및 奉獻회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특별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金善泰牧師는 韓國教會최초

전과 約10萬의 韓國盲人들에게 點字 성경, 찬송가를 전하는데 우리 교회의 협력을 받기 위하여서다.

點字 聖經・찬송가 한 세트에 約3千円 드는데 한사람이盲人 한사람에게 최소한도로 한세트를 기증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金善泰牧師는 5月末頃 귀국 예정이며 連絡處는 총회 사무실로 정하고 있다.

在日大韓基督教大阪教會 婦人會創立50周年記念

## 特別大講演會

講 師: 金玉吉博士 (韓國梨花女子大學總長)  
時 日: 1976年4月28日~5月2日 夜7:00~9:00  
場 所: 大阪教會 大阪市生野区中川西2-6-10 電話 06(731)6828  
主 催 在日大韓基督教大阪教會婦人會



講師 金玉吉博士







